

중·노년기 여성의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 사회적 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효과*

The Coping Process to the Death of Spouse among Middle and
Old-Aged Widow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Complexit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崔 惠 卿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Choi, Hye-Ky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complexity in coping to the death of spouse among middle and old-aged widows. The important findings from the data based on the sample of 161 widows are (1) age differentiates the types of stress experienced by widows, (2) social support and self-complexity may either buffer or intensif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widows reside in, the negative effects of stress on psychological health among widows, and (3)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self-complexity differs according to age of widows with older widows being more affected by these coping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pport the assumptions drawn from Life-Course Perspective to explain the coping process to the death of spouse.

* 본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과제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부부관계는 긴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인간관계로서 각 배우자의 다른 생활영역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하기 마련이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이 개인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이라는 점에서 (Strobe 등, 1988), 배우자의 상실이 남은 배우자에게 주는 의미를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

선행연구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은 남은 배우자의 복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망의 가능성까지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일관성있게 보고해왔다(Hansson 등, 1988, 1993). 종단연구들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남은 배우자의 적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배우자와의 사별 후 1-2년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다가 상실에 대한 적응반응을 회복하면서 5-7년 이내에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이 구분된다는 것이다(Arbuckle, 1995).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경향을 볼때, 한국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상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중·노년기에 배우자 상실이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로 남성과 여성의 사망율을 비교하면, 중년기에는 남성의 사망율이 여성의 2-3배에 달하고(통계청, 1993),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차는 더욱 커져 8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의 절대다수가 여자노인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노년기 여성의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연구는 증가하는 중·노년기 미망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배우자사망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단기적인 적응은 물론 홀로살기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편부모가족이나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배우자사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매우 소수이다(참고 구자순, 1983; 김선영, 1990). 또한 대부분이 홀로된 여성의 삶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고 일관성있는 연구결과를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과정적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을 바탕으로 한국 미망인들의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고자 한다(Clausen, 1986 참고). 생애과정적 관점은 생애사건의 발생여부도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발생시기(time), 즉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언제 사건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도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과정(process)과 맥락(context)에 초점을 맞추므로, 생애사건에 대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resilience factor)과 적응을 방해하는 위험요인(vulnerability factor) 등의 중재요인을 규명하고, 발견된 결과를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데 유리한 이론적 틀이다.

본 연구는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이 구분되는 기간으로서 효과적인 중재가 절실한 약 7년 이내의 사별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배우자사망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둘째,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을 규명하며, 셋째, 생애주기에 따른 이들 변인들의 중재적 역할상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목표를 둔다. 생애주기는 대체적으로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별 후 7년 이내의 기간은 생애주기상 큰 폭의 기간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생애주기의 지표로 사용한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여성 보다 젊은 여성들이 배우자사망을 더욱 부정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Sable, 1991). 반면 노년기 여성들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고독, 불안 무력감 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주장도 있다(Sanders, 1980; Lopata, 1993). 생애과정적 관점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비일관적인 연구들을 통합하여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생애과정적 관점을 배우자사망이라는 사건에 적용할 때 다음의 두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서 배우자사망을 경험하는가는 배우자사망이 예상된 경험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며

(Wortman & Silver, 1990) 그 가족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발달과업과 맞물려있다(Sanders, 1988). 인간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애과정을 따라 다양한 역할과 지위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전환의 순서와 시기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특정 시점에 특정한 경험을 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발생이 예상된 경험이 아닐 때 개인의 삶에 혼란이 오고 더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배우자의 사망은 사랑하는 이의 상실이라는 사건 자체 뿐 아니라 재정,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을 포함하는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느 시점에서 배우자를 상실하였는가에 따라 배우자상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유형이 다르고 성취해야 할 삶의 목적도 달라진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다르므로 배우자사망의 시점은 배우자 상실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처자원들의 가용성과 관련된다(Clausen, 1986). 인지적 특성, 재정적 자원, 사회관계망 등의 심리적, 사회적 대처자원들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유형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들 대처자원들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Wortman & Silver, 1990).

연령차에 대한 비일관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이상의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연령 자체가 배우자상실에 대한 적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결부된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arkes, 1988; Sanders, 1988). 젊은 여성들은 배우자사망이 생애주기상에서 기대되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상실로 인한 정서적 충격이나 생활상의 변화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Ball, 1977), 삶의 여러영역에서 미완성인 시기이므로 상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더 많은 유형의 어려움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Toth 등, 1990; Ferguson 등, 1991).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기능이나 소득과 같은 대처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Sanders, 1990; Lopata, 1993) 나이 든 미망인들은 대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배우자사망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적응을 설명하는 대처자원들로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또는 사회적지지의 부족이 많이 지적된다(Strobe 등, 1988, 1996). 많은 학자들이 가족 및 친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실제 제공되는 도움, 사회관계망의 가용성에 대한 지각 등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측정된 사회적지지가 배우자사망에 대한 미망인들의 적응을 중재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reen & Feld, 1989; Bankoff, 1983; Lopata, 1993; Strobe & Strobe, 1987; 구자순, 1983). 생애주기에 따라 접촉하고 교류하는 사회관계망이 다르며 또한 의존도도 다르다는 사실은 일관성있게 보고되어 왔다(정은, 1994; 구자순, 1983; Lopata, 1988).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자아구조체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Woodfield & Viney, 1984). 따라서 자아구조는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에 차이를 가져온다(Vachon, 1982; Parkes & Weiss, 1983). 자아구조를 나타내는 다양한 개념들 중 Linville(1987)의 자기복합성(self-complexity)은 개인의 실제역할과 관계의 수에 의존하여 측정하는 개념이므로, 배우자사망과 같은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Linville(1987)은 자기복합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스트레스의 영향을 그와 관련된 자아양상에만 국한시키므로 나머지 자아양상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재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같은 논리로, 결혼과 관련된 범주를 뛰어 넘는 광범위한 자기관점을 지니고 있던 여성은 사별 후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아구조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는 경향이 있다(Labouvie-Vief, 1986). 최근에는 자기복합성과 적응과의 관계가 반드시 선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Woolfolk & Novallaney, 1995), 자기복합성의 정도를 범주화하여 각 범주의 자기복합성의 중재적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해볼 때,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은 미망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자원, 즉 중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요인들의 효과는 미망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배우자 사별을 경험

한지 7년 이내인 중·노년기(30대 이상) 여성들 총 161명이다. 이들은 중·노년기에 걸쳐 비교적 고른 연령분포를 보이며, 교육수준, 소득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1〉 참조).

측정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는 설문지이며 포함된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사망으로 인한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 3가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주관식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161〉

변인	구 분	빈도(%)	변인	구 분	빈도(%)
연령	40세 이하	44(27.3)	자녀수	무자녀	2(1.2)
	41-50세	54(33.5)		1명	20(12.4)
	51-60세	24(14.7)		2명	70(43.5)
	61-70세	28(17.4)		3명	32(19.9)
	71세 이상	11(6.7)		4명 이상	37(22.9)
	합 계	161(99.6)		합 계	161(99.9)
교육 수준	무학(서당)	11(6.8)	월평균 소득	60만원 이하	34(21.3)
	국졸	32(19.9)		61-100만원	54(33.5)
	중졸	36(22.3)		101-161만원	37(23.0)
	고졸	63(39.1)		161-200만원	20(12.3)
	대제 이상	19(11.8)		200만원이상	16(8.8)
	합 계	161(99.9)		합 계	161(99.1)
생활비*	일해서 번다	110(68.3)	직업	주부	60(37.3)
	자녀의 보조	39(24.2)		일용/기술자	21(13.1)
	친척의 보조	9(5.6)		서버비직	46(28.6)
	남편퇴직금	18(11.2)		자영/관리직	28(17.4)
	재산소득	41(25.5)		전문/관리직	2(1.2)
	국가의보조	17(10.6)		기타	4(2.5)
합 계	34(145.4)	합 계	161(100)		
종교	기독교	56(34.8)	사별 기간	2년 이하	51(31.7)
	천주교	21(13.0)		2-4년 이하	51(31.7)
	불교	52(32.3)		4-5년 이하	32(19.8)
	무교	28(17.4)		5년 이상	27(16.6)
	기타	4(2.5)		합 계	161(99.8)
	합 계	161(100)		합 계	161(99.8)
주거 형태	자가	105(65.2)	사망예상 여부	예상함	55(34.2)
	전·월세	52(32.3)		예상못함	106(65.8)
	기타	4(2.5)		합 계	161(100.1)
	합 계	161(100)		합 계	161(100.1)

* 중복응답임.

** 반올림으로 인해 100%를 넘거나 미만일 수 있음.

으로 자유로이 기입하도록하여 응답을 구하였다. 응답을 어려움의 유형별로 분류하였고, 경험여부에 따라 가변수화(1=예, 0=아니오)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은 우울감과 심리적 복지감으로 측정하였다(참고 조병은 등, 1995). 우울감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심리적 복지감은 현재 경험되는 생활에 대한 복지감을 묻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 변인들로는 사회적 지지원, 실제지지, 지지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원은 지명법(nomination)을 적용하여 현재 연구대상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을 최고 10명까지 기재하도록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내용을 친정, 시집, 자녀, 친구, 기타(이웃, 직장지인, 종교관련 지인 등)의 5가지 지지원으로 분류하였고, 존재여부에 따라 가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도움의 기능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실제로 도움이 주어지는지의 여부(실제지지)와 앞으로 위기시에 도움이 주어질 것으로 지각하는지의 여부(지지지각)를 측정하였다. 실제지지와 지지지가의 점수는 응답된 도움의 기능의 수를 합한 점수이다.

자기복합성은 Linville(1987)의 자기복합성 측정을 위한 실험법을 설문지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부정적의 두가지 독립된 차원으로 구분하여((Woolfolk 등, 1995), Linville(1987)이 제시한 공식에 따라 각 차원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긍정적 자기복합성은 1.20점, 2.49점을 기준으로 부정적 자기복합성은 0.50점, 1.20점을 기준으로 상, 중, 하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중간수준의 자기복합성 (1)과 높거나 낮은 수준의 자기복합성 (0)으로 가변수화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2단계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척도들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여성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에서는 1996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 7개월간 snow-ball sampling 기법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을 표집하였다.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모두 184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60% 이상), 연구에 적절치 않은 23부를 제외하고 총 1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 결과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기법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은 각 어려움변인과 각 사회적지지 또는 자기복합성 변인간의 2차원 상호작용을, 생애주기에 따른 중재적 역할의 차이는 연령, 각 어려움변인, 각 사회적지지 또는 자기복합성 변인간의 3차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회귀모델로 검증하였다. 3차원 상호작용 모델에 관련 변인들의 2차원 상호작용의 조합을 모두 포함할 때 변인들간의 다중공산성과 모델의 singularity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Southwood, 1978),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정되는 연령과 사회적지지 또는 자기복합성, 그리고 어려움과 사회적지지 또는 자기복합성간의 2차원 상호작용만을 3차원 상호작용 모델에 포함시켰다.

IV. 연구결과

1. 배우자사망으로 인한 어려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경험하는 어려움을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6가지의 유형이 나타났다. '외로움'은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에서 오는 외로움,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느끼게 된 허무함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나 자녀교육 및 양육비에 대한 걱정, 노후대책 문제 등을 포함한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결혼지위가 바뀐에 따라 느끼게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소외감, 어색함, 위축감 등을, '부모역할상의 어려움'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포함한다. '건강상의 어려움'은 미망인 자신의 신체적 기력의 쇠퇴를 나타낸다.

빈도를 보면, 부모역할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고(55.3%),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보고하고 있다(각각 46.0, 44.7%). 대인관계나 도구적 역할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수가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각각 29.2, 23.6%), 건강문제

를 보고한 여성이 가장 적었다(17.4%).

생애주기에 따라 배우자사망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다. 연령과 각 어려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r=-.17, p<.05$),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r=-.22, p<.005$), 건강상의 어려움($r=-.39, p<.001$)이 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의도와 상관없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많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더 적게 나타났다. 연령과 이들 어려움 변인들과의 유의한 관계는 교육이나 소득수준, 그리고 사망예상여부, 사별 이후의 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배우자사망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미망인의 적응상태에 부적으로 관련된다. 외로움을 보고하는 집단이 보고하지 않는 집단 보다 우울감이 더 높고($r=.35, p<.001$), 심리적 복지감이 더 낮다($r=-.$

26, $p<.001$). 또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하는 집단의 심리적 복지감이 더 낮다($r=-.22, p<.01$). 다른 유형의 어려움들은 우울감이나 심리적 복지감과 직접적인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증재적 역할

중·노년기 미망인들의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에서 사회적지지의 증재적 역할은 외로움과 부모역할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나타난다(〈표 2〉).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이 친구로부터의 지지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지지가 없는 집단에서는 외로움을 보고한 미망인과 그렇지 않은 미망인간에 우울감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나, 친구지지가 있는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시집

〈표 2〉 사회적지지 및 자기복합성의 증재적 효과

(N=161)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울감 b(β)	심리적복지감		
			b(β)	b(β)	b(β)
<u>어려움 변인^{a)}</u>					
	외로움	17.08*(.58)	-1.72*(-.18)	-	-.97(-.10)
	부모역할어려움	-	-	-1.23(-.13)	-
<u>사회적지지변인^{b)}</u>					
	친정지지	-	-	-3.19**(-.33)	-
	친구지지	.57(.02)	-	-	-
	시집지지	-	2.35*(.20)	-	-
<u>자기복합성변인^{c)}</u>					
	부정적 자기복합성	-	-	-	1.78(.18)
<u>상호작용효과</u>					
	친구지지×외로움	-9.50*(-.30)	-	-	-
	시집지지×외로움	-	-3.37*(-.20)	-	-
	친정지지×부모역할어려움	-	-	3.32*(.34)	-
	외로움×부정적 자기복합성	-	-	-	-4.23**(-.33)
	상수	47.86	13.10	14.07	13.02
	R ²	.16***	.09**	.06*	.11***

* p<.05 ** p<.01 *** p<.001

a)b)c) 가변수임.

지지는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외로움은 더 낮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는데, 시집지지가 있는 집단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미망인과 경험하지 않는 미망인간의 차이가 시집지지가 없는 집단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친정지지는 부모역할에서의 어려움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

자기복합성 변인 중 부정적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이 외로움과 관련하여 나타난다(〈표 2〉). 부정적 자기복합성은 외로움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하여서, 중간 수준의 부정적 자기복합성을 지닌 미망인들이 높거나 낮은 수준의 자기복합성을 지닌 미망인들 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심리적 복지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3〉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중재적 역할

〈N=161〉			
독립변인	종속변인	우울감	우울감
		b(β)	b(β)
연령		-.13(-.11)	-.28(-.23)
어려움 변인 ^{a)}			
경제적 어려움		1.41(.05)	-
건강문제		-	-.08(-.002)
사회적지지 변인 ^{b)}			
시집지지		34.17*(.95)	-
자녀지지		-	-11.60(-.39)
상호작용효과 ^{c)}			
연령×사회적지지		-.79*(-1.00)	.24(.47)
어려움×사회적지지		-51.92*(-1.12)	45.39*(1.09)
연령×사회적지지×어려움		1.15*(1.11)	-.69*(-1.08)
상수		58.80	65.02
R ²		.06	.05

* p<.05

^{b)} 가변수임.

3.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다. 우울감에 대해 연령, 경제적 어려움, 시집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¹⁾). 시집지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미망인들에게 취약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이러한 시집지지의 취약요인으로서의 역할은 미망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더 커진다. 또한 우울감에 대해 연령, 건강문제, 자녀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지지는 건강문제에 직면하여 미망인들의 적응력을 더 강화하며 이러한 경향은 미망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표 4〉 생애주기에 따른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

〈N=161〉			
독립변인	종속변인	심리적 복지감	우울감
		b(β)	b(β)
연령		.03(.08)	-.24(-.21)
어려움 변인 ^{a)}			
도구적역할		1.74(.16)	-
부모역할		-	-3.13(-.11)
자기복합성변인 ^{b)}			
긍정적		-	10.49(.36)
부정적		-3.04(-.31)	-
상호작용효과 ^{c)}			
연령×자기복합성		.06(.32)	-.25(-.43)
어려움×자기복합성		13.61(.89)	-37.43(-1.11)
연령×어려움×자기복합성		-.33*(-.97)	.82**(.120)
상수		10.64	66.81
R ²		.06	.08*

* p<.05 ** p<.01

^{a)} 가변수임.

1) 상호작용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값은 상대적으로 큰 표준오차를 시사함. 그러나 변인들간의 다중공산성이 발견되지 않고 관련변인들의 2차원 상호작용효과와 주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3차원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해석하는데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봄(Southwood, 1978).

다.

〈표 4〉를 보면, 중간수준의 긍정적 자기복합성은 부모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나이든 미망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수준의 부정적 자기복합성은 도구적 역할수행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적응방해 효과를 보이는데, 미망인들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진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약 7년 이내의 배우자사별 초기단계에 있는 중·노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하여 배우자사망으로 인한 어려움,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에서의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역할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젊은 나이의 미망인들이 나이든 미망인들 보다 대체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이들 어려움 변인들은 미망인들의 적응과 부적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젊은 여성들에게 배우자사망이 생애주기상에서 기대되지 않았던 사건이고 삶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이든 미망인들 보다 더 많은 유형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생애과정적 관점에서의 가정을 지지한다.

배우자사망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에 의해 완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사회적지지 중 친구지지와 친정지지, 자녀지지는 배우자사망에 대한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시집지지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의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시집지지의 방해요인으로서의 역할은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시집지지의 부정적인 효과는 부계적 친족관계에서 남편을 상실한 며느리의 위치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집에서 며느리의 서열과 권리는 남편을 통해 주어지므로, 남편의

상실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모호해진 상태에서 시집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의존은 여성들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상에서 나이가 들수록 친족관계에서 중요한 서열로 이동하게 되므로 나이 든 여성이 남편의 상실로 인해 더 위치가 모호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기복합성 변인들로서 중간수준의 긍정적 자기복합성은 자녀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중간수준의 부정적 자기복합성은 도구적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미망인들에게 취약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러한 경향들은 사별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커진다.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어려움의 특성에 따라 자기복합성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대체로 도구적 문제는 미망인들이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제가능한 문제이다. 반면 자녀양육은 미망인들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의 유형을 반영한다. 통제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이 큰 미망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더 큰 무기력감이나 분노를 느끼기 쉽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위 상황과 타협할 줄 아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생애주기상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배우자사망이 주는 의미가 다르고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성취해야 할 과업이 달라진다는 생애과정적 관점의 전제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사별여성들은 배우자사망이 예상되지 않은 사건이고, 배우자가 없는 삶을 준비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인생의 주체로서의 삶을 구축해가는 초기에 배우자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삶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역할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나이든 사별여성들은 심리적(자기복합성), 사회적자원(사회적지지)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더 어려움을 경험하기

도 한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자원들은 사별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 확실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별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유형과, 배우자사망과 관련하여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횡단적 연구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배우자사망의 경험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경험하는 어려움의 유형과 배우자사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며, 또한 사회적지지와 자기복합성의 중재적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사별여성들을 위한 보호요인과 취약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미망인들을 삶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며, 한국사회에서 증가하는 중·노년기 미망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구자순(1983). 한국 여자미망인. 여성연구 1(1), 109-144.
- 김선영(1990).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1994). 상배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사회적 접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 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 Arbuckle, N. W. & Vries, B.(1995). The long-term effects of later life spousal and parental bereavement on personal functioning. *The Gerontologist* 35(5), 637-647.
- Ball, J.(1977). Widow's grief. *Omega* 7(4), 307-333.
- Bankoff, E. A.(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827-839.
- Clausen, J.(1986). The life-course: A sociological perspective.
- Ferguson, T., Schorer, C., Tourney, G., Ferguson, J. (1981). Bereavement, stress and rescaling therapy, in O.S. Margolis, H.C. Raethe, et al. (Eds.). *Acute Grief*.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Greene, R. 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33-51.
- Hansson, R.O., Remondet, J.H., & Galusha, M.(1993). Old age and widowhood. In M. S. Strobe, et al. (Eds.). In *Handbook of bereave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sson, R.O., Strobe, M. S., & Strobe, M. S.(1988). In conclusion: Current themes in bereavement and widowhoo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207-216.
- Linville, P.(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ni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Lopata, H. Z.(1993). The support system of American urban widows. In M. S. Strobe, W. Strobe, & R. O. Hansson (Eds.). In *Handbook of bereave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s, C. M.(1988).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53-65.
- Parkes, C. M. & Weiss, R.(1983). *Recovery form bereavement*. New York: Basic Books.
- Sable, P.(1991). Attachment, loss of spouse, and grief in elderly adults. *Omega* 23(2), 129-142.
- Sanders, C. M.(1988). Risk factors in bereavement outcome.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97-112.
- Southwood, K. E.(1978). Substantive theory and statistical interaction: Five mode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5), 1154-1203.
- Strobe, W. & Strobe, M.(1987). Bereavement and

- heal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obe, M. S., Strobe, W. S., & Hansson, R.(1988). Bereavement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1-18.
- Strobe, W. , Strobe, M., Abakoumkin, G. & Schut, H.(1996). The role of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in adjustment to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41-1249.
- Toth, A. & Toth, S.(1980). Group work with widows. *Social Work* 25(1), 63-65.
- Vachon, M. L. S.(1982),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daption to conjugal bereave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998-1002.
- Woodfield, R. L. & Viney, L. L.(1984). A personal construct approach to the conjugally bereaved woman. *Omega* 15(1), 1-13.
- Woolfolk, R. L. & Novalany, J.(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108-1120.
- Wortman, C. & Silver, R.(1990). Successful mastery of bereavement and widowhood:A life-course perspective. In P. Baltes &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